

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비대칭 개선방안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 건 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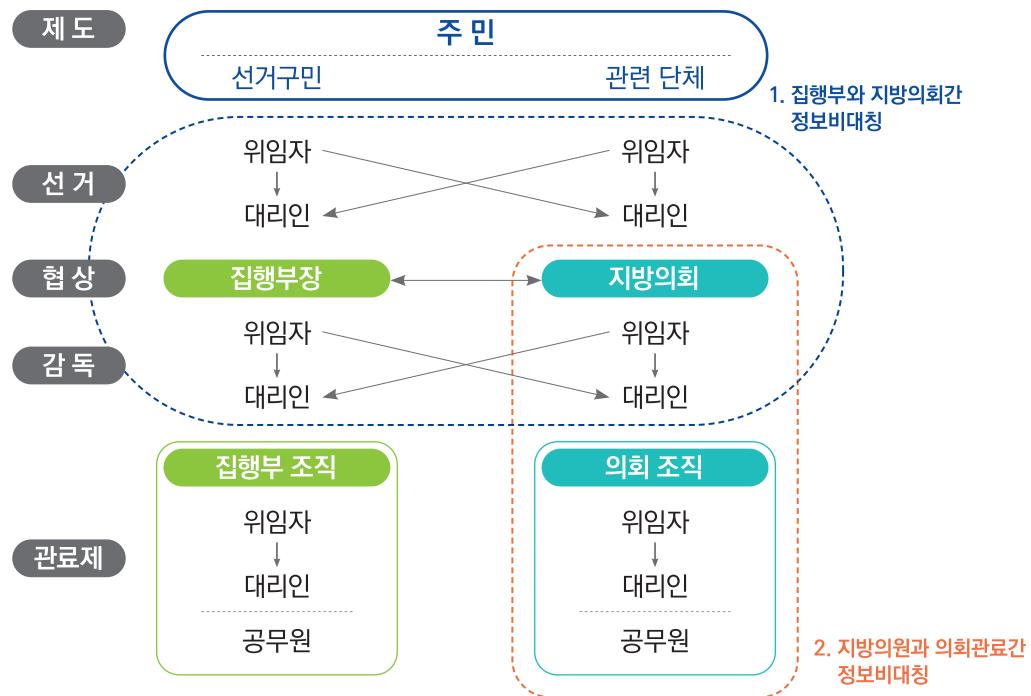
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비대칭 문제점 분석 필요

■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정보 비대칭 : 권력 격차로 귀결

-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강한 집행부-상대적으로 약한 의회 형태를 개선하는 작업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상 필요충분 조건임
 -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의 궁극적 피해자는 주민이 될 것임
- 이 글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격차 실태를 도식화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

■ 정보비대칭 : 지방의회가 비판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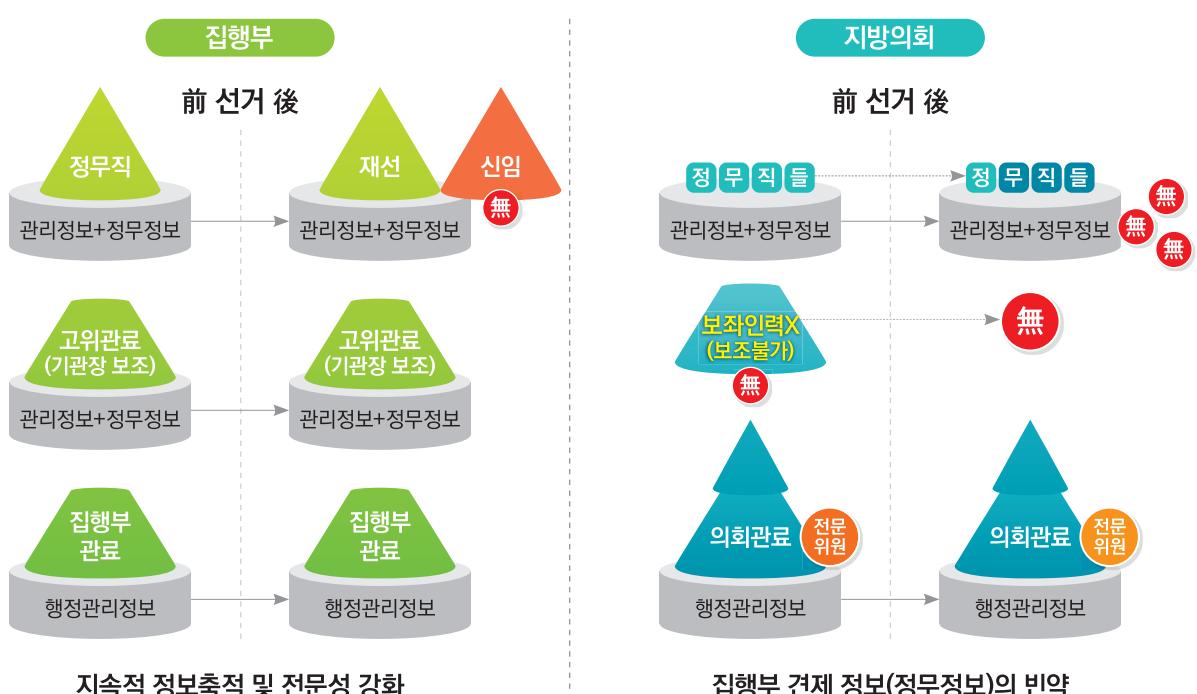
- 지방의회 비판받는 원인은 정보비대칭, 전문성 부족 그리고 의회보좌기능 취약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
- 직업관료로 구성된 집행부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 반면, 선거에 의해 교체되는 지방의원은 정책 정보를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
 - 집행부는 주요 정책의 심도깊은 내용까지 알 수밖에 없는 반면, 지방의원은 그러한 관료 출신이 아닌 이상은 개략적 내용밖에 알 수 없게 됨
- 지방의회 내의 의원에 의한 관료통제 역시 한계가 존재함
 - 구조적 측면에서 법·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달리 관료를 통제하기 쉽지 않음



정보비대칭 원인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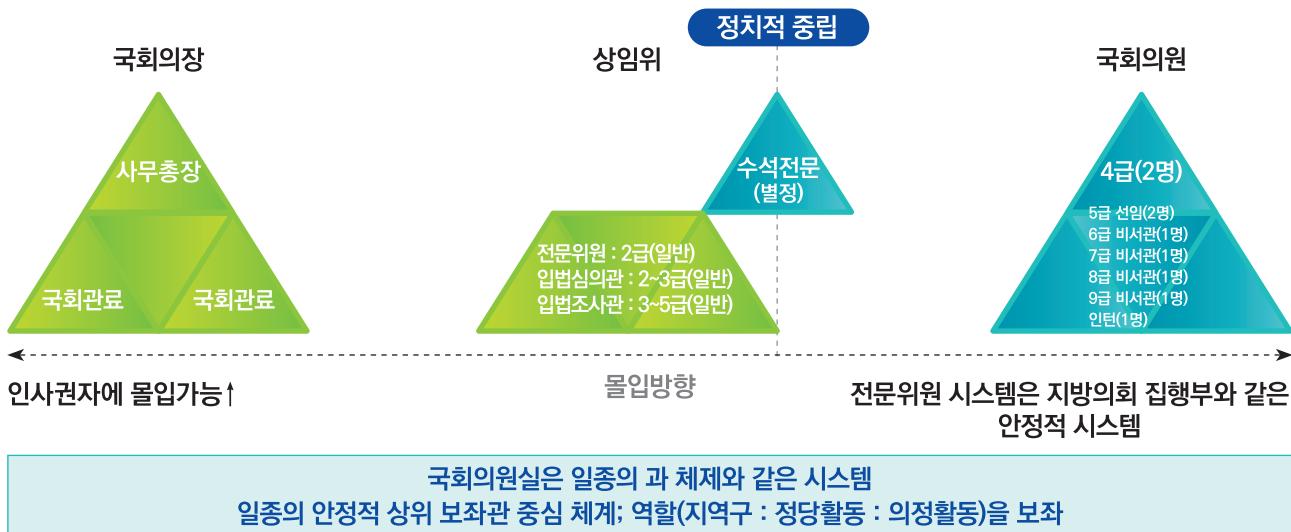
■ 업무지속성의 한계

-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정보는 보좌진과 지방자치단체 관료에 의해 유지·관리됨
 -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보좌진(국회의원은 해당 의원실에서 선발하는 별정직 체제)이 없어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(행정관리정보)만 남게 되어 일종의 노-하우가 사라지게 됨
 - *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
- 선거로 교체되는 비율이 국회의원, 지자체 집행부 장보다 높기 때문에 정보손실은 더 클 수밖에 없음



■ 안정적인 국회의원 지원시스템과 불안정한 지방의원 지원 체계

-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, 이를 통해 지방의원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음
- 국회의원은 누구든 일종의 과(科) 체제 성격의 보좌진들의 지원을 받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- 전문위원 체제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음
 - 즉,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음



■ 정보비대칭 개선 방안

■ 기본 인력의 확대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직위분류제 적용 가능성 검토

-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며, 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
 - * 합리적인 봉급지불은 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
- 지원인력의 부족상황을 합리적 봉급 지불로 해결하려는 시스템일 수 있으나, 기본적 인력과 조직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

■ 전문위원제도 개선 : 역할의 명확화

-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전문위원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
- 국회법의 전문위원제도와 같이 전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, 자료제출요구권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

■ 정책지원관 운영의 묘(妙)가 중요

- 현재처럼 정치적 중립에 대해 경계가 강하다면, 지방의회의원 지원에 한계가 노정될 것이 예견됨
- 신분상 한계로 의원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, 궁극적으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실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검토해야 함

내용문의 김 건 위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, cigma@krila.re.kr)